

해외 ICT 표준화 동향

2015. 5

1th Week

목 차

1. 본문

- ▷ TTC, '미래 모바일 네트워킹 검토회' 백서 공개
- ▷ ETSI, IPv6 관련 산업규격그룹 신설

2. 단신/토막뉴스 5 쪽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게시물 보기 : TTA 홈페이지 ▷ 자료마당 ▷ TTA간행물 ▷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1. TTC, '미래 모바일 네트워킹 검토회' 백서 공개

보도날짜 2015.04.27

출 처 TTC

사 이 트 http://www.ttc.or.jp/j/info/topics/fmn-ah_wp/

- 일본의 정보통신 기술위원회(TTC,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)는 최근 5G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모바일 네트워크 연구가 일본과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면서 '미래 모바일 네트워킹 검토회' 백서를 공개했음
 - 일본에서는 ARIB에서 2013년부터 "2020년, 그리고 그 이후의 무선 중심 검토"가 활발히 이루어졌고, 여기에서 2014년 8월 백서가 발행된 바 있음
 - TTC는 미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무선 기술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, 본격적인 IoT와 새로운 사용사례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제공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
- 이번 TTC에서 공개한 백서에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활동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함
 - 먼저, ARIB의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의 검토를 비롯해 일본내외 연구 동향 검토 및 일본의 독자적인 이동통신 사업의 관점에서 미래의 모바일 네트워크 실현에 필요한 기술 과제를 추출했다고 전함
 - 다음으로, 추출 된 과제에 대해 일본내외 연구기관과 표준화 단체에서 고려되는 기술요소와의 관계를 정리하고, 향후 2020년과 그 이후의 미래 모바일 네트워크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했다고 함

2. ETSI, IPv6 관련 산업규격그룹 신설

(ETSI renews focus on IPv6)

보도날짜 2015.04.27

출 처 ETSI

사 이 트 <http://www.etsi.org/news-events/news/955-2015-04-news-etsi-renews-focus-on-ipv6>

- ETSI는 더 나은 IPv6의 통합과 배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IP6 산업규격그룹(ISG, Industry Specification Group)을 새롭게 신설하였고, 4월 22일 프랑스의 ETSI 건물에서 첫 번째 회의(kickoff meeting)를 개최했다고 전함
 - IPv6는 기존의 IPv4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고, 향상된 종단간(end to end) 보안으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고 함
- ETSI의 새로운 규격그룹은 다양한 대상(target) 커뮤니티에서 IPv6 통합과 배포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나리오, 사용사례, 모범사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함
 - 첫 번째 대상은 정부, 기업, 비상 및 공공 안전기관,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, 이동통신 사업자, 학계 및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고 함
 - IPv6를 새로운 기술에 사용하는 것은 또한 사물인터넷(IoT)과 M2M 커뮤니케이션,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,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, 클라우드 컴퓨팅, 스마트 그리드 등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함
 - 그러나 전반적으로는, IP6 ISG는 완벽한 무선 네트워크와 이동통신 무선 기술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보면서, IPv6 프로토콜을 차세대 이동통신 및 5G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함
- 첫 번째 회의에서 라티프 라디드(Latif Ladid)가 그룹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전함
 - 그는 현재 IPv6 포럼과 룩셈부르크 대학의 리서치 펠로우(Research Fellow) 회장으로 역임중임
 - 휴렛 팩커드(Hewlett-Packard)의 야닉(Yanick)과 시스코시스템의 패트릭(Patrick)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함
- ETSI의 사무총장 루이스 로메로 (Luis Jorge Romero)는 IP6 ISG가 인터넷 성장을 보장하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까지 포함하여 모든 세계가 연결될 수

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언급함. 그는 또한, 일부 대형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미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으며, IoT와 수많은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도래와 함께 IPv6가 필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

- IPv6의 광범위한 채택은 최근 속도가 줄었지만,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IPv6 개발을 이끌 것이고,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, 2017년까지 50% 정도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됨
 - IPv6는 128비트 주소를 사용하며, 20,128개의 주소를 사용가능하게 하고, 이는 IPv4의 7.9×10^{28} 배나 많은 양이라고 함. 이 정도의 많은 주소 공간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
 - IPv6는 또한, IPv4와 비교해 라우터에 의한 간단 처리, 서비스 품질, 보안 IP 이동성 등의 다른 많은 혜택과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함
 - 그러나, IPv6는 디지털 격차 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산업에 IP 주소를 제공하는 등 수요에 대처하고 세계의 인터넷 요구 팽창을 예상해야 한다고 언급됨
- 모든 ETSI 회원은 IP6 산업규격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, 회원이 아닌 조직들에게도 오픈되어있다고 함. 자세한 사항은 ISGsupport@etsi.org로 문의

단신/토막뉴스

ATIS, ATIS 5G 심포지엄 개최 예정

<http://campaign.r20.constantcontact.com/render?ca=363a01ce-e3df-4bbf-b441-edd8206efea5&c=e3d50fc0-7985-11e4-86e9-d4ae5292c36f&ch=e3da8e00-7985-11e4-86e9-d4ae5292c36f>

(2015.04.27.)

- ATIS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시카고에서 업계 최고의 무선 전문가들을 모아 미래의 인터넷에 대한 5G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
 - ATIS 5G 심포지엄은 산학연, 그리고 정부 전문가가 모여 북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5G의 기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
 - 연설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앞으로 무엇이 기술 혁신과 혁명으로 정의될 것인지에 대한 변화를 언급할 예정이라고 함
 - ATIS 5G 운영위원회(Steering Committee)는 알카텔-루슨트(Alcatel-Lucent), AT&T, 시스코, 에릭슨, 퀄컴, 스프린트, T-모바일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음

ANSI, SCC와 국가 및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MoU 체결

http://www.ansi.org/news_publications/news_story.aspx?menuid=7&articleid=746e40fe-4d66-4d50-8525-a361ad35cc0c

(2015.04.27.)

- 미국표준협회(ANSI,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)의 회장 겸 CEO인 조 바티아(Joe Bhatia)와 캐나다 표준위원회(SCC, Standards Council of Canada)의 존 월터는 2015년 4월 14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범아메리카표준위원회 (COPANT, Pan-American Standards Commission) 총회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함
 - 이번 체결은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,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)과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안에서, 그들의 국가표준에 무역기술 장벽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각 나라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함
 - ANSI와 SCC는 다양한 국제 및 국가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 기관의 업무 프로그램, 운영,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동의하였다고 함